

사유 통해 우주를 본다

‘우주’ 화가 오경환 회고展(11월 27일 까지, 일민미술관)

난해하다 ‘추상적이다’ ‘절묘하다’ 다양한 수식어를 물고 다니며 평생 ‘우주’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 ‘우주 화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오경환(65·前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씨. 오작가의 회고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열리는 세종로 일민미술관(02-2020-2055)을 11월 2일 찾았다. 미술관 1층에서 만난 오경환 작가는 소탈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전시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마자 속사포 같이 쏟아내는 말에서 작품에 대한 정열과 애정이 물씬 느껴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기작에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120여 작품이 전시돼 오경환 작가의 40년 작품세계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게 한다. 같은 시기 안국동 갤러리175(02-720-9282)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일상 소품 위주의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120여 작품 한자리 우주와 일상 나란히 배치 유약한 인간 대비

‘우주를 그리는 화가’ 하면 단번에 떠오를 정도로 ‘우주’를 주제로 평생을 작업한 오경환 작가. 어릴 때 본 김푸른 우주를 배경으로 한 만화는 그의 일상을 뒤 흔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큰 울림은 평생 그를 우주 속에 빠져들게 했다. 오경환 작가가 우주를 향해 사유하고 관조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간 작품들은 일민미술관 3개 층을 가득 메웠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가 40여 년 간 천착해왔던 ‘우주’와 그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일상’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리저리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 우주공간을 표현하거나, 가벼운 느낌의 수채 풍경화 등은 신비로움과 중후함을 동시에 풍긴다.

3m가 넘는 캔버스에서부터 찻잔의 종이받침, 편지봉투,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이에서 그린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는 캔버스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그의 창작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올해 8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정년퇴임을 앞두고 거제도 장승포에 작업실을 차렸다.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물러드는 파도와 바닷가에 내려앉은 물안개, 흰자게 떠오르는 붉은 해에 이르러 밤을 새워가며 그림에 몰두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 ‘바다, 환상’ ‘천공-안개’ ‘일출’ 등은 요즘 작가가 꼭 빠져든 ‘우주’와 ‘일상’의 만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와 자연을 담은 거대한 그림 곁에 일상을 그린 자그마한 캔버스가 나란히 걸려 끝없는 우주와 유약한 인간의 존재를 대비시킨 2부작으로 완성된 것이다.

“하나의 사물은 전 우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체만물은 서로 형제이고 우리는 우주의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한 것도 모든 만물이 형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일상의 연결고리를 그림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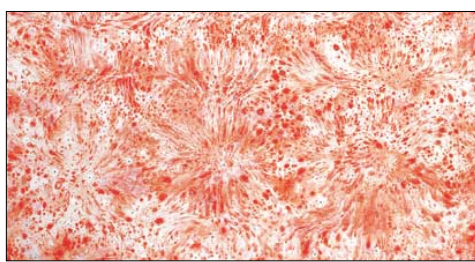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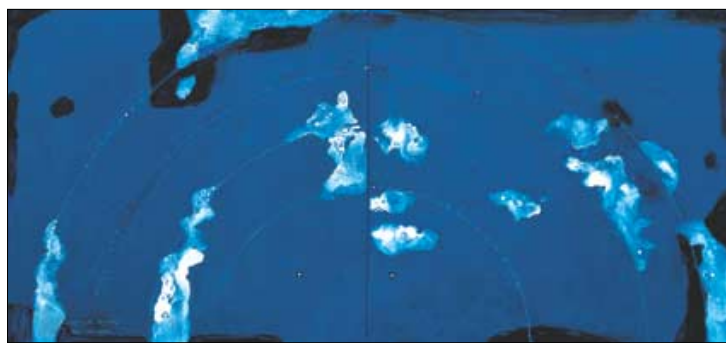
나는 별이 좋아 여행한다
우주는 리얼한 현실이며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불교의 연기이자 공처럼



우주 속 유일무이한 존재를 ‘檀燈佛’로 표현했다.



일상의 인간인 새벽바다(왼쪽)와 우주(오른쪽)를 나란히 배치해 하나로 얽혀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천공-안개’.



‘유천(流天)’은 삼라만상이 붉게 소용돌이 치는 세계를 형상화했다.

그가 자연과 일상의 조화를 시도한 작품들에 대해 평론가들은 추상과 구상의 만남을 시도했다고 평한다. 그러나 오경환 작가는 자신의 그림은 ‘구상과 구상의 만남’이라고 말한다. 우주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은 리얼한 현실 그 자체라는 것. 어려서 만화에서 접했던 우주는 이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현실 속 우주는 그대로 그의 작품 안에 녹아들었다.

그의 작품을 지향하는 모티브는 우주와 함께 여행이 한 축을 담당한다. 그에게 여행은 별과 별을 찾아다니며 사유하는 시간이다. 도시화 현대화로 하늘 볼 시간을 뺏긴 도시인들에게 별을 찾아주고 싶었

다.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보석 같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던 그 정서를 그림에 담았다.

우주를 관조하다 보니 불교의 세계관과 철학에도 폭 빠져들었다. 그는 우주에서 상공과 상관, 공허를 본다. 모든 것은 서로 상관관계로 얽혀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불교의 연기(緣起)이자 공(空)이다. 이 같은 그의 사상은 작품 ‘유천(流天)’에서 잘 드러난다. 붉게 소용돌이치는 ‘유천’은 바로 삼라만상의 세계이다.

오경환 작가는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꾸준히 고민해왔다. 한때 단청도 연구하고 현대적 불화를 그리기도 했다. 71년 제2회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선했고 그해 인연이 되어 심사위원단 6차례 역임했다. 또 동국대에서 20년간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는 불교회화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누가 원력을 내서 적당한 사찰을 우리 미술가들에게 맡긴다면 불교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오경환 작가는 “현대 건축으로 법당을 건립하고 현대미술가들이 시대를 담은 현대적인 불화를 그려 넣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사찰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간절한 원을 내비쳤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오원배 교수가 본 오경환의 작품세계

생성, 소멸을 평생 화두로 작업

화가 오경환 선생은 우주를 사유하는 작가이다. 선생은 여행을 통해 작품을 구상한다. 선생이 여행을 다니는 것은 생각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랑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하느라 여행을 즐긴다.

여행다니는 지역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각각의 사유를 바탕으로 우주를 바라본다. 오 선생의 작품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펼쳐낸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런 우주를 진술하게 담은 작품들이 이번에 전시되는 것이다.

선생은 “어떤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절망했노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렇게 평생을 생각을 찾아 여행하고, 여행에서의 생각으로 우주를 바라봤다.

사유하는 것을 즐기는 오경환 선생에게 불교의 세계관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선생은 생성과 소멸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왔다. 일상에서 움직이다 보면 선생이 늘 말하는 생성과 소멸의 문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성됐다가 소멸된다.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문제는 선생이 평생 화두로 좇아다니는 것이다. 우주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요, 성주공공(成住壞空)의 세계이다. 선생의 작품은 이러한 불교적인 사유를 그대로 녹여낸다.

(동국대 미술학부교수)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寺 조청**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寺 조청은 바구니 스님들의 정성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 않는 **산寺 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혈의 해소, 신경조율, 영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寺 쫄면조청 1.2kg
중금속해독, 독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면간식을 10배 더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寺 조청 월빙 자연당
1100g x 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월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름 : 왼쪽 아베콘 사용가능

원두막 6000 x 3000 x 3200(mm)
8000 x 3000 x 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방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820 x 350(mm) 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 x 1030 x 350(mm) 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어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립사양별 견본도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www.bangaro.com FAX:(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진 화수문시 무료배송 [전통목부기시별도] 지역대리점 문의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백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백진반,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5. 12. 5 월·화·수·목반(주·야간반: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과 과정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영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넘어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과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 침술 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성표등록: 614981호
의상출원: 제35872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방한용 탈신**

저압식 깔창 **탈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종은점**

발냉계 무압깔창

만행 표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규격: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2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초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오